

국민의 주권선언은 ‘투표’로

자치CEO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민주주의는 제도나 절차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결국 민주주의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젊은 공무원의 아이디어 하나가 혁신의 물꼬가 되고, 현장에서 만난 주민의 한마디가 지역 변화의 출발점이 된다. 이웃의 삶을 바꾸고 도시의 미래를 움직이는 힘 역시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광주 서구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변화해 왔다. 1년 전 우리는 “서구의 정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지역사회에 던졌고,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 정신에서 그 답을 찾았다.

조선태조 3대 부호 중 한 분이셨던 회재 박광옥 선생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 그리고 1980년 5월 양동시장 상인들이 시민군에게 주먹밥을 내어주던 그 따뜻한 연대의 마음. 우리는 이 정신을 ‘착한도시 서구’라는 도시브랜드로 계승·발전시키며 사람 중심 행정, 주민 참여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착한 사람이 행복하고, 착한 가게가 번창하며, 착한 기업이 성공하는 도시. 우리 서구는 ‘생활 속 참여’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골목경제100 프로젝트’다.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주민

과 상인들이 직접 나섰다. 식당, 카페, 주유소, 미용실 등 서구 전역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소비자들은 최대의 할인혜택을 누리고, 상인들은 매출 증대의 효과를 누리는 상생의 경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정책의 중심에 주민이 서고, 참여와 협력을 통해 골목경제를 다시 살려 내고 있다.

복지도 마찬가지다. 서구에는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참여형 복지’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 가슴 따뜻한 마음부자들이 참여하는 ‘서구아너스’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후 6개월만에 74명이 회원으로 가입했고 26억원의 기부금을 모았다.

이들은 다문화가정의 외갓집 방문 프로젝트, 자립준비청년과 가족돌봄청년 응원장학금, 시각장애인 위한 텐덤바이크 기부, 장애인 부부 결혼식 등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따뜻한 연대를 전하고 있다. ‘복지틈새제로(0)’, 12달이 행복한 서구’를 기치로 내걸고 단발성 후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연대를 통해 착한도시 서구의 선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다.

행정도 달라졌다. 서구는 주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동 중심의 ‘생활정부’를 구현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거점동-연계동’ 시스템, 마을 BI(BrandIdentity)를 통한 동 특화사업 추진, 마을 합창단과 동아리 등을 통한 주민들의 참여기회 확대, 동장이 국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인사 혁신 등 서구의 행정은 점점 더 주민

가 가까이, 마을 깊숙이 다가서고 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나의 메시지로 이어진다. 참여는 단지 행사나 캠페인이 아니라 우리 삶을 바꾸는 가장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정책은 혼자 만들 수 없다. 행정은 사람을 이끌 수 없다. 우리가 함께할 때 변화는 가능해진다.

이제 그 정신을 더 크게 확장해야 할 때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내 한 표로 뭐가 바뀔까?” 회의론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우리가 함께할 때 바뀐다”는 것을.

서구의 골목이 살아나고, 복지 시작지대가 줄어드는 것도 모두 ‘참여’ 덕분이었다. 투표도 마찬가지다. 더 나은 삶,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내가 먼저 참여할 때 변화는 시작된다.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는 더 중요하다. 정치를 외면할수록, 정치는 더 멀어지고 삶은 더 불안해진다. 그러나 내가 손을 내밀면, 정치도 손을 내민다. 내 삶을 바꾸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미 젊은 세대는 지난 겨울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들고 광장으로 나와 정치의 흐름을 바꿔냈다. 이제 이러한 행동이 투표로 연결되어야 할 때이다.

오는 6월3일은 ‘주권자의 날’이다. 우리는 단지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투표는 가장 평화로운 방식의 행동이자 가장 강력한 참여다.

우리가 함께한 골목의 변화처럼, 대한민국도 우리가 함께 바꿀 수 있다. 민주주의는 참여할 때 살아 숨쉬고, 외면할 때 무너진다.



기고 김주웅 전남도의원

국제통상 변화 흐름
지켜야 할 농민의 삶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선언은 한국에 무역 질서의 전환을 강요하고 있다. 한미 FTA 체결 이후 10여 년간 무관세 기반으로 형성됐던 대미 수출입 질서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그 여파는 산업 전반에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농업은 그중에서도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그동안 농업 보호를 위해 다양한 장치를 유지해왔다. 한미 FTA 당시에도 이들은 주요 협상 쟁점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상호관세 부과를 통해 ‘상호주의’를 주장하며 이 같은 비관세 조치들을 관세율 산정에 포함시켰고, 한국은 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25%의 상호관세율을 통보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쌀에 최대 513% 관세를 부과한다”며 무역 불균형의 근거로 한국 농업을 직접 언급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역 기간, 쇠고기와 가공품, 사료 원자재, 원예작물 등에 대한 제약 문제가 명시돼 있다. 이는 향후 FTA 재협상 국면에서 농업시장 개방과 비관세 장벽 철폐 요구가 정면으로 제기될 수 있다는 신호다.

FTA의 근간이 흔들리는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통상 현안이 아니다. 자유무역 체제에서 이익을 누리던 국가들조차 보호 무역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는 농업 개방을 유보해왔던 한국에 더 구조적인 압력으로 작용한다. 상호관세가 철폐되지 않는다면 쌀·쇠고기·과일류의 고율 관세 체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을 지키기 위한 제도와 법안들이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FTA 대부분에 ‘최혜국대우’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번 사안을 미국과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이러한 통상 환경의 변화는 농업 정책에 구조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정부와 지자체 등 농정 유관 기관은 대부분 ‘농업 보호’에 초점을 맞춰왔다. 더불어 국제 협상에서는 ‘농업의 특수성’을 앞세워 개방을 유예해왔다. 그러나 이제 그 전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개방 자체를 막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한 전략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답은 명확하다. ‘농업’이 아니라 ‘농업인’을 지켜야 한다. 농업을 주제로 한 FTA 조항이 재편되는 국면에서 시장 개방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따라서 시급한 과제는 농업인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 생계 주체로 재정하는 정책 전환이다. 농업인의 충격은 단순한 수익 감소가 아니라 생계 기반의 붕괴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이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검토하고, 재취업·전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농촌 특화형으로 설계해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생계 유지와 지역사회 기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고용보장 전략, 전환기 창업 자금 등 금융 지원,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 마련이야말로 새로운 농정의 핵심 과제가 돼야 한다.

특히 전라남도과 같은 농업 중심 지역은 피해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 ‘FTA 재협상’이라는 외부 변수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전략은 개방 자체를 막기보다 충격을 완충하고 회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농업의 ‘시장 경쟁력’이 아니라 ‘시대 흐름 속 농업인’이라는 시각을 정책 설계에 도입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국제 무역 변화 속 생존을 위한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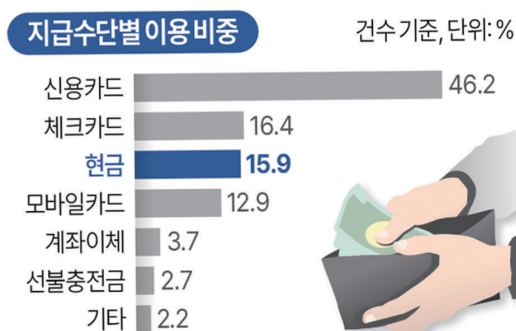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발표는 ‘미국 농업을 지켜야 한다’며 한국 농업에 경고를 보냈다. 한국 또한 더 이상 ‘우리 농업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구조다.

이제는 누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고민할 때다. FTA 재협상으로 농업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경우, 보호를 외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전환의 설계를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한다. 농업이라는 산업이 흔들릴 때, 그 안에 살아온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농정의 시작이자, 통상 환경 격변기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정치의 역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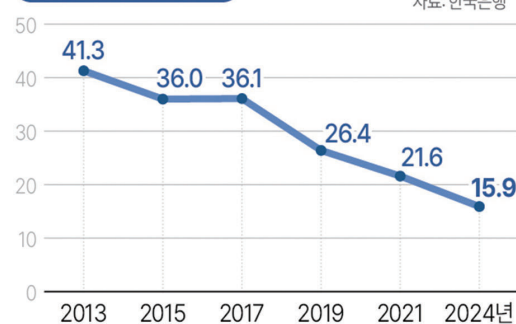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지급수단중 현금 이용 현황

2024년 전국만 19세 이상 성인 3,551명대상 조사



현금 이용 비중 추이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